

**엠축 <베트남>**

고향생각 힘들때  
실컷 울어버려요

**임연하 <중국>**

일년 한번이라도  
고향 다녀왔으면

**두백령 <중국>**

내 남편은 만점  
설거지도 도와줘



광주시 서구지역에 사는 이주여성들이 최근 서구 건강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설맞이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행사에서 설 차례상 차리기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송깨우따 <태국>**

양동시장서 장 봐  
설 음식 만들죠

**손페아라 <캄보디아>**

시택인 화순 가서  
산적 만들기 신나

**데이서 <필리핀>**

가끔 서운하지만  
결론은 행복해요

■ 외국덕 아줌마들의 설 수다

“이젠 엄청난 설 음식도 척척...광주사람 다 됐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설은 마음의 고향이다.

이역 만리 타국에서 남편 하나만 믿고 광주에 시집 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광주 신랑과 결혼한 지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 어느덧 광주 사람이 됐다.

설 음식 장만에 힘들어도 어른들 눈치 보여 아무 말 못하고, 애들하고만 놀면서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아쉬워지만 한 여전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다. 다만 여건상 고향의 부모를 만나기 어려워 눈물짓는 슬픔만은 어쩔 수 없었다.

광주 서구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사랑방에서는 최근 '다문화가정 아름드리 다사랑회 자조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은 서구 건강지원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매달 한차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레크레이션 강습 등으로 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이주여성은 엠축(26·베트남)·손페아라(24·캄보디아)·데이서(31·필리핀)·송깨우따(40·태국)·임연하(34·중국)·두백령(33·중국)씨 등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을 앞둔 탓에 '설맞이 전통문화체험'으로 구성됐다. 2시간여 동안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오고 간 이주 여성들의 수다를 들어봤다.

이들은 설하면 뭉뚱뚱해도 떡국이고, 세뱃돈이 떠오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명절 음식을 만들어 가족은 물론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보고 정을 느꼈고, 부모·형제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정겹다고 말했다.

수다는 역시 설 음식 장만으로 시작했다.

결혼 15년차인 송깨우따씨는 베테랑답게 양동시장에서 혼자 장을 봐 옆 동네 시택에 가서, 명절 음식을 혼자 만든다고 한다. 그리 어렵지않다는 표정

에 다들 놀라워하는 표정이었다.

이중 24살로 막내인 손페아라(결혼 2년차)씨는 어린 탓인지 설이 마냥 즐겁다. "명절 때마다 시택인 화순에 가요. 형님들과 함께 산적, 부침개 등 음식을 다 함께 준비해요. 전 고기와 해물 등이 섞인 산적을 매우 좋아해서 만들면서 한 개씩 집어 먹어요."

두백령(결혼 7년)씨는 음식 장만할 때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준다고 자랑부터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떡국 만드는 자신있고, 만든 음식마다 시어머니가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준다고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과시했다.

서로서로 자랑이 한창인데 베트남 엠축(결혼 3년)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혔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데다 남편의 건강이 안 좋은 탓에 올해는 아예 음식 장만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아줌마의 수다 중 백미는 역시 남편 홍보기(?)다. 손페아라씨는 "음식 장만하랴 청소하랴 바쁘는데, 남편은 조카들 데리고 밖에 나가 놀아요. 나 일하고 있을 때 놀고 있으면 화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청소는 남편이 해줘요. 우리 남편 자상하죠."

홍보는 듯 하면서 은근히 자랑이다. 데이서(결혼 4년)씨는 "필리핀은 그렇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도 명절 음식만큼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역시 불평이지만 결론은 행복이다.

시어머니 자랑이 유난했던 두백령씨는 역시 남편 자랑도 낱살 수준이다. "너무 잘 도와줘요. 남편과 장도 함께 보고, 음식재료도 들어줘요. 설거지도 당연하죠. 이만하면 만점 아닌가요?"

송깨우따씨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가정 형편이 좋아져서 옆자리에만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기는 태국에서 광주로 시집왔는데 남편은 2년 전에 베트남으로 돈 벌러갔다. 그저 볼 수만 있어도 만족이란다.

명절이 좋기는 한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시집와서 공통적으로 놀란 게 엄청난 설 음식이라고 한다.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견들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설날 하루 동안은 어른에게 세배하기 위해 많은 친척들이 방문하고, 방문을 받는 집에서는 음식을 매번 대접하는 풍습을 이주여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은 가족, 친척들이 한번에 모

여 잔치를 하면 좋을 텐데요"라며 의아해 하기도 했다.

아무리 남편이 좋고, 시부모님이 잘해줘도 역시 고향이 그리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엠축씨는 베트남이 그리운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땐 전화를 하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게 보고 싶어 더 힘들다고 한다. 결국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실컷 울어야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두백령씨는 화상 채팅을 하면서 고향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손페아라씨는 힘들 땐 서구 건강지원센터를 찾아 캄보디아·태국 등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 '한국에 나 홀로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린다고 한다.

임연하씨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명절 때나 일년에 한번이라도 고향에 다녀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수다의 끝자락에 아줌마들은 올해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랐다. 물론 고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건강 기원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걱정스럽고 간절한 것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별 탈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모든 친구들과도 잘 지내기를 희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주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사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기비 한빛!

7급 고모인 3월 2일 시작반

9급 아간반

4월 10일 시작반

특별기획특강

합격

9급 문제풀이

합격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호남유일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9급 아간반 개설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방직

마감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